

# 비나는 사람들

6

2023년 6월 3일 발행 Vol. 4 탐파 새빛교회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 11:24)

## 김섭리 목사의 신앙 컬럼(5)

---

### 삶을 회복시키는 습관들(2):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습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에서의 열정적인 선포와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난 호에서는 회개의 습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죄로 인해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습관적인 그 죄의 행위 자체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내가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예배의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 경배와 찬양이라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드리는 예배”였다. 그 결과,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부터 예배의 실패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다해 집중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과정이 선행되는 것인데,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 않고 “본다”고 표현하면 마치 큰 실수를 한 것처럼 여겨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은 우리의 감정적 충족을 받으려 애쓰는 이중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정성과 찬양을 드리고 그 보상으로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을 받으려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개념이 그러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감정의 충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단지 세련된 음악과 나를 눈물 흘리게 하는 감동적인 말씀을 통해 일시적인 위로를 받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 까요?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가 말한 예배의 개념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주된 이유는 나의 유익이나 혜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 말씀, 역사, 하나님의 뜻이 갖는 신적인 탁월함과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함과 아름다움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경험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누리는 특권, 즉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결과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스러움의 본질 자체를 기뻐한다. 그 본질을 깨달아 그것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기뻐하기 보다 그 분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 분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그 중심이 우리 자신의 감정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전문 찬양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려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의 가사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자체를 노래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내가 받는 감정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노래들을 통해 그 동안 희생과 충성만을 강조해 온 교회에 새로운 회복을 가져온 것은 복된 일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복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경배의 노래들이 불러져야 한다.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에서의 예배를 묘사하는 장면은 가장 핍박이 심했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옆에서 같이 핍박 받던 신앙의 동지들이 오늘 하늘의 보좌 앞에서 천군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지금의 핍박을 이겨내며 두려움 없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고난과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습관,  
그것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에 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모든 예배를 위한  
성전이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합창대이자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흔들리는 가지,  
끝없는 푸른 하늘에 펼쳐진 구름,  
때로는 천둥 번개의 격정적인  
고백과 선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보는 습관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교회 소식

---

### Mother's Day



5 월 14 일 Mother's Day 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친교실에서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다. 이날 아이들이 부른 노래의 이름은 "And I love her cause she's my Mum" 이다. 엄마들 또한 깜짝 이벤트로 옷을 맞추어 입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 Meghan Trainor 의 "Mother" 라는 노래에 맞추어 칼군무를 펼쳤다.



Youth 아이들도 어머니들을 위하여 오케스트라 연주와 특송을 준비하였다. 오케스트라팀은 "Mother's Love Medley"를 연주하였다. 특송을 준비한 팀은 Stevie Wonder 의 "Isn't She Lovely"를 열창하였다.



공연 뒤에는 아이들이 손수 만든 마더스데이 선물과 교사들이 준비한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들께 선물해 드렸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네받은 어머니들이 포옹과 감사인사를 전했다. (사진제공: 정은숙 집사)

## 2023 년도 졸업축하행사/Youth Senior Banquet

5 월 21 일 예배당에서 2023 년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 증정과 꽃다발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름은 김은우(Sean), 노은서(Zio), 윤서연(Kate), 정수현(Alex), Leah Labreche, Ryan Labreche 총 6 명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름은 김혜림(Sarah), 윤희연(Lynn), 이혜인(Kaite) 총 3 명이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름은 고우리, 김혜나(Hannah), 장석훈(Charles), 임준(Joel Em), 최영세로 총 5 명이다. (사진 김혜나 제공)





(왼쪽에서부터 김혜림, 윤희연, 이해인 학생과 학생들의 부모, 자매들)



또한 이날 오후 4시부터 친교실에서 Youth Senior Banquet 행사가 있었다.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세 여학생 (김혜림, 윤희연, 이해인)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다. 졸업축하파티에서는 졸업생 부모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 새빛교회 37주년 창립기념주일

5월 28일 새빛교회 37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서 전교인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빛교회는 1986년 5월 25일 오승일 목사님과 방은미 사모님이 설립하신 한인제일침례교회로 시작했다. 1995년 12월 현재 위치로 이전했으며, 1996년 1월 미국 남침례교에 가입하며 새빛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왼쪽에서부터 김미나 사모님, 김섭리 목사님, 오승일 목사님, 방은미 사모님)

## 교우동정

---

### 전도사님 가정 득남소식



5 월 26 일 최예건 전도사/송지호 사모의 장남 최승하(Wesley)가 태어났다. 많은 분들의 축하와 함께 아가도 산모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사진제공: 김섭리 목사님/송지호 사모)

### 조현숙 집사 장기출타

조현숙 집사가 2 년간 장기출타로 6 월 초에 출발하여 한국과 필리핀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여행 다니며 그곳에서 살아볼 예정이다. (사진제공: 조현숙 집사)



## 교회 사역팀 소개

---

2023년 중점사역인 3개 사역원에 속한 25개 사역팀에 대한 소개입니다. 매월 각 사역원에서 한 팀씩 총 3개의 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새빛교회 팀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팀사역을 그 모델로 삼습니다. 팀사역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같은 비전과 핵심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개되는 팀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는 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빛교회 여전도회

탐파 새빛교회의 여전도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며 지역사회를 돕는 사회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새빛교회에 등록된 기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초에 함께 예배드리고 사업을 구상, 진행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하며 회복시키는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 2023년에는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스테인리스 그릇, 접시와 수저를 구입하여 사용 중이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머그컵과 개인 텀블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함 중에서도 피조물 회복 선교에 모두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 년 중 한차례의 화합회를 통해 회원 간의 친목 시간을 갖고 있고 목적 바자회를 통해 국내외 선교 및 구제 자금을 마련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023 상반기에는 교회 리모델링팀과 협력 및 튀르키에 지진구제헌금으로 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임기를 맡은 회장(정은숙), 부회장(김명희), 총무(박현영), 서기(고하정), 부서기(유영란),

회계(송미희), 부회계(김영주) 임원들은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새빛교회 여전도회 임원 왼쪽에서부터 송미희, 박현영, 김명희, 정은숙, 김영주, 유영란, 고하정)



## 새빛교회 남전도회

남전도회는 교회 내 기도, 전도, 봉사, 구제, 친목 등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설립된 신앙 공동체로 새빛교회에 등록된 만 65 세 이하의 기혼 남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친교실/본당/



교회 주변 청소, 제반 시설 관리 및 보수, 주방 봉사, 전교인 교회 행사, 피크닉, 안전순찰, 주방 봉사 등등을 통해서 교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데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빛교회 모든 기혼 남성은 남전도회 카톡방과 정기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필요한 안건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같이 사역의 방향성을 나누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해주세요. 앞으로도 교회 팀 사역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넉넉히 쓰임 받는 남전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 해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 간증

---

### 간

증문을 쓰려고 하니 막막하기도 하고, 적은 인원과 조용히 나누는 것이 아닌 공개된 곳에 실린다고 생각하니 뭔가 객관적으로 실릴만한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을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담히 적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저는 7 살쯤 동네에 새로 생긴 교회에, 일요일이면 공짜 유치원쯤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 덕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노래도 배우고, 미술 시간도 갖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하니 부모님 보시기에 좋은 교육장소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 교회는 다른 곳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한 곳, 뭔가 다른 시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분들은 부모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어린 저와 제 동생을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주일 학교 선생님이 된 저는 세상과는 다른 시선,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 저에게 교회는 주일이면 마땅히 가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고 밤마다 읽은 성경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 3 이 되고 공부만 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성경을 읽는 시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의 눈에는 교회를 가는 주일이

시간낭비로 여겨져 교회를 못 가게 하셨고, 나는 도서관을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곧 아시게 되었고, 주일에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없었던 교회를 대학에 가서 다시 다니게 되었고 주님과 그의 기쁨을 회복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시던 때에도 부모님들은 가끔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질문을 하시곤 했습니다.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책도 좋아하시는 아버지는 꽤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저는 그 질문에 번번이 잘 대답하지 못했지만, 늘 아버지께 하나님이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아버지를 위해 25년 정도 기도했을 무렵, 아버지는 암 투병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길에 오르고 텍사스에서 공부하는 동안,

주님과 그의 기쁨의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유학을 반대하신 부모님께 손을 더 벌릴 수도 없던 때,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회개라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기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순서대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새벽기도 설교는 회개였고, 나는 또 다시 회개를 했습니다. 이틀째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에 대한 회개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 때문에 한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나에게 죄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용서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한 나를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파도들로부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를 만든  
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이 궁금하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글을 쓰는 동안,  
주마등처럼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일들과 감동이 생각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은경 집사**



**평안을 너의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의에게 주노라  
내가 너의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아니라  
너의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 부활 지우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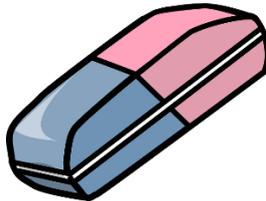
미

국의 유명한 과학서적 출판인 존 브룩만이 저명한 과학자 110 명에게 “지난 2000 년 동안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사이버문화’ 전문가로 꼽히는 과학 저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 (Douglas Rushkoff)는 “고무지우개”, 컴퓨터의 “del” 키, 수정액 “화이트아웃”을 꼽았다. 그 이유는 다시 돌아가 우리의 실수를 지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 했다.

누구나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고 싶은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에서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그래야 틀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컴퓨터에 “del” 키가 없었다면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애써 만든 문서를 한 글자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로웠을까?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을 깨끗이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든 지우개였다. 우리 사회에도 지워버리고 새로 출발하고 싶은 수많은 언동이 있다. 부활의 지우개로 말끔하게 지우고 새로 출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출처: 더미션, 김종구 목사(세신교회)



## 회개

---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metanoia 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생각하는 방식,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따르던 삶의 길, 삶의 방식, 삶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와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강영안, 『믿는다는 것』



## 신앙의 본질 수호한 선조 32 명

---

1944 년 5 월 10 일 함흥재판소는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의 전신인 동아기독교에 대해 “신사참배와 황국 유배를 거절함으로 일제와 천황을 모독했으며 교단의 교규 내용이 일제 국체 명징에 위배되는 불온사상을 지닌 교단”이라는 죄목으로 교단 해체령을 공포했다.



1936년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의 전신인 동아기독교 관계자들이 함경남도 원산에서 열린 대화회(총회)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한 모습. 오지원 박사 제공

전국의 교회 건물은 폐쇄됐으며 모든 예배 행위도 금지됐다. 교회의 종각들은 강제로 일제에 헌납됐다. 일제는 충남 강경 옥녀동 일대에 있는 약 4,000 여 평의 강경침례교회 대지를 압수해 신사 부지로 조성했다. 강경침례교회는 1896 년 설립된 기침의 최초 교회이다.

교단 폐쇄에 앞서 일제는 42 년 교단 지도자 32 명은 원산 헌병대에 의해 감금됐는데, 이중 전치교 목사가 옥중에서 순교했다. 나머지 지도자들 가운데 장석천 목사, 김해용, 남규백, 박두하, 이상필 감로(당시 장로) 등 5 명이 옥중 후유증으로 2 년 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침은 선조들의 숭고한 신앙 정신과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2016 년에 이어 두 번째 기념예배를 2023 년 5 월 10 일에 강경침례교회가 있었던 자리에서 드렸다. (출처: 더 미션)



##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뮤지컬 단원 모집:** 새빛교회만 아니라 탬파베이 지역 어린이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습은 6월 4일부터 시작하며, 6월 25일에는 주인공을 뽑는 오디션이 있습니다.

---

**Father's Day:** 6월 18일

---

**2/4 분기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훈련을 마친 교인들의 환영회가 친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플로리다 침례교협 목회자 가족 수양회:**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플로리다 침례교협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가 신의 창조물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른 모든 이들과 모든 것들도 신의 창조물임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마야 안젤루-*

*While I know myself as a creation of God, I am also obligated to realize and remember that everyone else and everything else are also God's creation.*

탬파 새빛교회  
NEW LIGHT CHURCH  
PRESENTS...

# “GOOD NEWS” AHEAD...

*the signs of Christmas!*



An annual musical program for children Kindergarten - 6th grade!  
매년 크리스마스에 열리는 이 공연은 유치부에서 6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솔로 오디션 날짜

Audition Date for solos: **SUN, JUNE 25th, 2023**

첫 연습 날짜

First Day of Practice: **SUN, JUNE 4th, 2023**

(Practice will be held every Sunday 1:30pm-3:00pm |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1:30부터 3:00 있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SCAN QR CODE  
TO SIGN UP:

Interested in volunteering? Sign up! Hours will be given upon request.

- Musical teachers
- Dance choreographers
- Stage staff
- Lighting staff
- Music staff

회비

TUITION: **\$20** (per month June - December)

『빛나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김성리 목사 편집장 박혜영 집사 편집인 광봉선 집사 안지연 자매 조현숙 집사

발행처 탬파새빛교회 6018 N Highland Ave, Tampa, FL 33604

<https://nlct.org> (813) 239-0213

NEW LIGHT BAPTIST CHURCH  
탬파새빛교회